

# 전남지역 농가부부의 노동과 여가: 의식 및 시간분석\*

## Time analysis and Attitude on Work and Leisure of Rural Couples in Chonnam District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한 경 미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Univ.  
Associate Prof. : Kyeong Mi Ha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work and leisure of rural couples in Chonnam district, to examine couple's perception about farm life,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time use of husbands and wives.

300 farmhouses were selected by stratified sampling from 20 Myon in Chonnam district, 244 husbands and 283 wives were interviewed using questionnaire and time diary.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 1) The rural couples have not pride on agriculture,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policy reliability was low, and impoverished conditions was high. 2) work time of wives was two hours longer did, and leisure time of wives was 73minutes shorter than their husbands. 3)The time use of husbands and wives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gricultural type, farmwork, house work time, age etc.

\* 본 연구는 1996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I. 서론

우리나라 농촌의 경영형태는 가족노작적 소농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청장년층 인구의 도시유출로 가족크기가 소가족화됨으로써 잔존한 노부부의 노동부담은 더욱 심각해졌다. 농립어업 취업인구의 비율이 1970년에 50%이던 것이 1995년에는 12.5%로 급감하고(한국은행, 1970, 1996), 55세 이상 취업자도 1970년 12.6%이었으나 1994년은 49.3%로 크게 증가하여 농촌의 노령화지수(38.3%)는 도시(13.6)보다 3배나 높다(통계청, 1995). 농가호당 가구원수도 급감하여 1967년 6.22명이었으나 1995년 3.23명이다(농림부, 한국은행, 각년도). 또한 농촌의 잔존인구는 상대적으로 저학력이므로 농업인구의 질적감소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농촌은 노부모와 동거하고 부양하는 비율이 도시보다 높으나(통계청, 1995) 노인부양이나 자녀양육을 도와줄 사회적인 지원체계도 미비하고, 농산물 저가격정책으로 농촌의 경제사정은 계속 악화되어 와서 시장재화나 용역으로 노동을 대체할 경제적능력이 없기때문에 노동의 강화와 심리적 부담, 건강상의 훼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농업노동이나 가사노동은 일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여 계속 증가하여 부담을 과중하게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이 과수와 채소, 비닐하우스같은 시설작물 재배가 많아짐으로써 농한기에도 충분한 여가시간을 갖는 것이 점차 어렵게 되었다. 한경미(1997)의 1979년 이후로 1995년까지 농업노동시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농번기의 노동시간은 적은 비율로 감소한 반면, 농한기의 노동시간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농번기와 농한기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 이 구분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농촌생활에서 주부들은 농사일과 가사일의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김태호, 1994; 김혜경 외, 1990), 농촌청년들의 결혼난의 주요 원인은 힘든 일 때문이라고 하였다(김일철 외, 1994).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어촌의 사망률이 도시보다 2.5배나 높는데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은 예방이나 악화방지가 가능한 질병들이는데도 대부

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보건복지부, 1997). 이는 농민들이 과중한 노동부담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도시주민들 보다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받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과부담으로 인한 농촌사회의 질 저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다각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농촌의 주요노동력이 되는 부부의 노동과 여가현황을 파악하는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농촌가정에서 의식주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도시에 비하면 크게 낙후된 수준이고, 지역사회와 가정환경의 실제 조건보다 농민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더 낮다(최은숙 외, 1992; 김인숙 외, 1993). 농업에 대한 자긍심이 생활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조완규, 1993),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십년간 정부의 공업위주, 도시위주의 성장정책에서 농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되었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농업의욕의 저하, 소외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특히 전남지역은 경지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고, 미곡과 맥류, 과실, 채소 생산량이 전국 최고이지만 영세성을 면치못하여 농가소득은 가장 낮아(농림부, 1996)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다. 따라서 농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남지역 농가의 생활의 질 향상을 꾀하는 다각적인 연구들이 절실히 요청된다. 농가의 생활의 질 저하문제는 바로 우리나라 농촌과 농업의 문제이고, 지속적으로 농업을 유지하여 식량을 조달하고 농촌이 발전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정학에서 다루어진 연구들은 도시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가족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과 농학분야에서 일부 이루어져 왔다. 가정학이 응용학문으로서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사회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지향적 학문분야(Brown과 Paolucci, 1979)임을 명시한다면, 미래의 가정학 연구방향과 대상은 중산층 이상의 도시가족에 편중된 연구를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오랜 기간동안 국가

적인 혜택에서 소외되고 복지체계에서 취약한 집단인 저소득가족과 농촌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한경미, 1997).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동력의 부족과 노령화현상으로 개별농가의 노동부담이 가중됨으로써 파급되는 농촌가정생활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현 농촌의 주요 노동력이 되는 부부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여가현황을 시간분석 자료와 인식조사로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결과로 농촌이 안고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농가부부의 농업노동 현황과 인식

농촌가족은 노령화와 과소화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개별 농가의 노동력부족의 압력이 심화되고, 노동과 증으로 인한 생활의 질 저하가 예상된다. 특히 전남 지역은 경지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고 미곡류와 과실, 채소생산량이 가장 많지만 영농규모가 영세적이고 가족노작적 소농이 많아 개별농가의 노동부담은 많고, 농가소득은 최하위로 경제력이 취약하다(농림부, 1996).

노동력부족은 농가여성의 영농활동 참여를 증가시켜 1990년에 농가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1%로 비농가여성 44.2%보다 훨씬 높다. 1993년(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노동 투하량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48%로 높아졌다. 논농사는 남성의 참여가 여성보다 높고,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밭농사는 주로 여성이 참여하였다. 농가주부의 농기계 이용율은 매우 낮아, 농업참여 여성의 6%만이 농기계를 사용할 줄 안다고 응답하였다(권영자 외, 1987). 월별 노동량을 보면 5월에 노동량이 가장 많고, 전체적으로 5,6,9,10월이 농번기이고 4,7,8월은 여유가 있는 편이며, 11월에서 3월은 농한기로 나타났다(농림수산부, 1993). 그러나 시설작물과 같은 복합영농을 하는 경우는 이러한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노동력부족 현상에 농촌가족이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김주숙

(1987)은 5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학생이나 노인을 제외하고는 농가의 전가족이 농업생산에 투입될 것, 둘째, 친척이나 이웃 등과 더불어 품앗이 등의 노동력 교환방법을 충분히 활용하고, 셋째, 가능한 기계를 도입하여 농사를 하고, 불가능한 경우는 기계품을 산다. 넷째,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규모를 늘리거나 새로운 농업생산을 꾀해보거나 겸업시도, 끝으로 자가노동력이 절대 부족할 때는 농토매각이나 임대 등을 들었다.

생활시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부부 농업노동시간의 추이를 살펴보면(한경미, 1997)영농의 기계화가 많이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의 감소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농업인구에서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부녀화현상이 일어나면서 생산력이 떨어지고, 가족 1인당 노동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농한기에도 시설작물 등을 재배함으로써 노동시간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9년 농번기의 경우 부인은 9시간 46분, 농한기에 73분을 투입하였는데, '95년에는 농번기와 농한기에 각각 8시간 6분, 2시간 10분을 할애하여 농번기의 노동시간은 다소 감소하고, 농한기의 노동시간은 약간 증가함으로써 그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작물 재배 면적은 1991년 52,622ha에서 1994년 92498ha로 증가하여 57% 신장율을 보이고 있어(농림부, 1996), 앞으로도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점차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의 폭은 적지만 남편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농번기와 농한기를 평균한 농업노동시간은 남편이 7시간 45분, 부인이 5시간 8분을 투입하여 남편이 부인보다 2시간 37분을 더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어촌 사망률은 도시의 2.5배인데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2.7배, 64세 이하에서는 2.2배를 나타내었다. 농어촌의 높은 노령인구비를 감안하더라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농어촌의 사망의 주원인이 되는 질병들은 예방과 악화방지가 가능한 질병들인데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았고, 의료서비스도 도시보다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보건복지부, 1997).

1991년 직종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근로시간에 대해 8.3%,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6.2%만 만족하고 있어 전직종 중에서 가장 만족수준이 낮았다. 직업의 장래성과 임금, 직무만족도에서도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생산노무직보다 낮은 최하위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 1994). 농민의 농업에 대한 인식을 보면 농촌의 저발전 원인은 정부의 도시편향적 정책때문이라고 46.8%가 응답하였다(김태호, 1994). 자녀에게 영농을 승계하겠다는 사람은 3% 밖에 되지 않고(김일철 외, 1994), 72%가 농사일을 그만 두고 싶거나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답하였다(김혜경 외, 1990). 그리고 농업에 대한 투자의욕도 저하되어 여유자금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농사에 투자하겠다는 비율은 22.3%에 불과하였다(농촌경제연구원, 1989). 또한 농민의 2/3는 농업정책이 농업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3/4의 농민은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보였다(김동일 외, 1982). 농촌 남성의 경우 객관적 변수보다 농업에 대한 자긍심이 생활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조완규, 1993), 지난 수십년간 공업위주, 도시위주의 성장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게 된 농민들은 가치관이 전도되고,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며,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농가부부의 가사노동현황과 인식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찰한 한경미연구(1997)에 의하면 농가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서 추이를 전반적으로 볼 때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부부 모두 농번기보다는 농한기에 더 많은 가사참여를 하였는데, 남편과 부인이 큰 격차를 가지고 있고, 시대변화에 따른 진전이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79년과 '95년을 비교하면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농번기는 별 차가 없고 농한기에 1시간 10분 정도 감소하였다. 농번기에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79년 이후로 별다른 차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최소한으로 일정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시간의 양이 4시간 30분-50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남편의 경우 역시 농번기에는 과거와 비슷하고, 농한기에는 감소하였다. 가사참여가 농번기와 농한기를 평균할 때 부인은 남편보다 4시간 27분을 가사노동에 더 할애하였다.

농가의 의식주 생활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도시에 비하면 가사노동환경이 열악한 수준이다. 김인숙 등(1993)은 농가의 생활수준을 측정하였는데, 가사작업면에서 가사편의 기구의 보유정도는 다른 생활수준보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경 등의 연구(1990)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등은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으나, 전기다리미, 전기후라이팬, 전기장판, 재봉틀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의 사회화 현황도 도시보다는 훨씬 낮아 식생활의 일부 영역인 라면(69%), 구이김(41%), 커피(33%)를 월 1-2회 이상 이용하고 조사대상지역 모두 농번기때 공동취사나 탁아소 등은 운영되지 않았다.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만족도는 도시주부보다 낮고(안옥희 외, 1994),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보다 유의하게 더 낮다(서광희 외, 1993). 과중한 노동으로 바쁘고 힘든 농촌주부가 가정생활에 불만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수입의 불안정성과 가사일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김혜경 외, 1990). 최근 연구(김태호, 1994)에서도 농촌 여성들은 농사일과 가사의 이중적 역할을 가장 큰 문제로 들었다(44.7%). 그 다음은 편의시설 부족(21.6%),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을 애로점으로 인식하였다. 농촌의 결혼문제는 67%의 농민이 '매우 심각하다'고 반응하였고, 결혼난의 주된 요인으로서는 43.3%가 힘든 농사일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은 경제적 어려움(26.4%)때문이라고 보았다(김일철 외, 1994). 과로로 인한 질병도 농촌가족의 심각한 문제이다. 김태호(1994)에 의하면 농부병은 팔다리와 어깨가 아프고, 어지럽고 두통이 심한 증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불건강의 원인에 대하여 농민들은 과중한 농사일(40.1%)과 시기적으로 적절한 치료미흡(25.2%) 등을 가장 크게 들고 있다.

노년인구 부양비율은 도시가 5.1%인데 농촌은 13.4%이고, 노부모와의 동거비율(시부 51.8%, 군부

68.2%)과 생계부양비율(58.8, 77.8)도 도시보다 높다. 이는 가사부담에 노인부양 부담까지를 더 가중시키는 것이다(농림부, 1996). 또한 노인부부와 노인단독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준비는 도시보다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준비없음: 도시 56.8%, 군부 73.2%, 통계청, 1995).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탁로소와 같은 복지시설 마련이 불가피하다. 노동력은 노령화되고 생산능력이 떨어져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농업노동은 과중한데,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가사노동이 있어 지역사회나 국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본다.

### 3. 농촌가족의 여가현황과 인식

시설작물 재배의 증가로 농번기의 구분이 없이 과수나 채소, 화훼, 약용작물을 하는 농가가 증가함으로써 농한기때도 농업노동시간이 증가하여 여가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점차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 부부의 여가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농번기의 여가시간은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농한기의 여가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농한기의 농업노동시간이 증가하여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 남편의 여가시간이 부인보다 많은데, '95년 자료에 의하면 농한기에는 남편이 7시간 47분, 부인이 5시간 28분을 여가에 할애하고, 농번기에는 남편과 부인이 각각 2시간 22분, 1시간 52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한기에는 남편의 여가시간이 부인보다 2시간 20분이 더 많다. 농한기와 농번기를 평균하면 남편은 5시간 3분, 부인은 3시간 40분으로 남편이 부인보다 여가에 1시간 23분을 더 할애하였다. 농번기와 농한기 여가시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남편과 부인 모두 TV시청이고, 이웃·친척방문, 취미생활은 농한기에 증가하였으며, 나머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한경미, 1997).

1990년(초회금)연구에 의하면 농번기에 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2시간 19분, 농한기에 6시간 16분으로 연평균 4시간 18분이었다. 김혜경 등의 연구

(1990)에서는 농가주부의 문화적시간은 평균 3.5시간이고, 주로 TV를 시청하거나 라디오 듣는 것, 독서, 이웃과 친구, 친척 방문으로 여가의 질이 낮은 것으로 지적하였다. 최은숙과 김인숙(1990)은 주부의 하루 평균 자유시간의 정도가 1-2시간미만이 31.0%로 가장 많고, 0-1시간 미만이 29.1%, 2-3시간 미만 26.0%, 3시간 이상은 13.9%로 나타났다. 또한 한가할 때 주로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다가 22.0%로 가장 많고, 친구나 이웃, 친척방문이 17.9%,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15.8%, 낮잠, 부녀회활동, 종교활동 등에 5% 이상 답하였다. 그리고 교양을 쌓기 위하여 신문을 읽거나 TV 교양프로, 잡지 정기구독 중 2가지 이상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4.7%에 불과하였고, 시간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43.3%나 되었다.

이상의 농촌주부의 여가시간을 조사한 결과와 도시 비취업주부의 것과 비교하면 농촌주부의 여가시간은 1시간 30분 - 2시간 10분이 더 적다. 농촌주부의 여가내용을 도시의 취업주부나 비취업주부와 비교해보면(한경미 외, 1990; 한경미, 1991) 농촌주부 여가활용은 상대적으로 더 단순하고 내용의 질도 크게 떨어졌다. 김인숙 등의 연구(1993)에 의하면 객관적인 농가의 여가생활 상태는 다른 영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주관적인 생활만족 수준에서도 가족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김동일등(1982)이 농촌의 생활의 질을 측정할 결과, 대다수는 의료시설을 제외한 환경조건이나 사회적 조건 내지 상호작용면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지만, 주택이나 농사일, 여가활동과 휴식 또는 농가소득과 같은 개인생활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저소득 농가의 불만수준이 높았다. 최은숙 등(1992)은 생활의 질을 각 가구의 객관적 생활조건과 주관적 만족도, 그리고 살고 있는 마을의 객관적 생활환경과 주관적인 만족도를 각각 측정한 다음 이 4가지 점수의 합을 농촌가족의 총체적인 생활의 질로 분석하였는데 그 수준은 100점 만점에 57.7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인 평가수준도 지역사회에 대한 것보다 개별가구에 대한 평가수준

이 더 낮고, 객관적인 실제 생활조건보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만족의 정도는 더 낮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김인숙 등(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1986년과 1992년(최은숙의) 연구를 비교해보면 8개 생활영역에서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이 가장 낮았다.

현 농촌가족은 여가생활을 향유할만한 시간적 여유나 소득의 뒷받침이 부족할 뿐아니라, 사회제도적인 여가시설이나 체계가 미흡하여 여가생활에서는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현사회에서 여가는 노동과 분리할 수 없는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활동으로써 일을 전제로 한 노동력 재생산의 시간이며 활동임을 감안할 때, 농가부부의 복지를 위해서 더욱 많은 여가정책과 지원대책, 농촌가족을 위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 1) 전남지역 농가주부의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과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 2) 농가부부가 농업노동의 유형별로 투여하는 시간과 현황은 어떠한가?
- 3) 농가부부가 가사노동의 영역별로 투여하는 시간과 현황은 어떠한가?
- 4) 농가부부가 여가의 하위영역에 투여하는 시간과 현황은 어떠한가?
- 5) 농가부부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여가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질문지와 생활시간 기록표(time diary)이다.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과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기록표는 부인과 남편의 시간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촌은 노동과 여가에 있어서 평일과 휴일이 구분이 도

시근로자만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평일 하루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시간표는 하루 24시간을 15분씩 구획한 차트로써 대상자가 전날의 시간을 회상한 것을 기록하였다. 농업노동의 경우는 김인숙 등(1996)의 분류와 조희금(1990), 농촌진흥청(1988)의 분류를 참고하여 구분하였으며, 가사노동과 여가는 한경미(1991)의 분류를 사용하였다.

####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남도 농촌의 면소재지에 거주하는 가구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20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해당지역에서 1-2개 부락을 선정하여 부락크기가 소촌인 경우는 10가구를, 중촌 이상의 부락에서는 2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다단계 층화표집을 사용하였다. 조사원은 조사자와 생활시간기록표에 대한 면접교육을 마친 23명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면접법으로 조사원이 기록하거나 본인이 기록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예비조사는 1996년 12월 초순에 광주근교의 장성과 곡성, 담양에 거주하는 6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질문지를 보완하여, 1997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300가구를 선정하여 질문지 300부와 부인의 생활시간 기록표 283부, 남편 244부가 회수되어 분석에는 283부가 사용되었다.

#### 4. 자료의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 만족도 수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여가시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포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관련변수들간의 관계는 분석하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법을 적용하였다.

### Ⅳ. 결과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수	구 분	빈도(%)	변 수	구 분	빈도(%)
부인 연령	20-29세	8 ( 2.8)	동거 막내자녀 연령	자녀없음	154 (54.5)
	30-39세	40 (14.1)		초등학교 이전	18 ( 6.4)
	40-49세	76 (26.9)		초등학교	28 ( 9.9)
	50-59세	98 (34.6)		중·고등학교	56 (19.9)
	60세 이상	61 (21.6)		대학교 이상	27 ( 9.5)
남편 연령	20-29세	1 ( )	주택 건축년수	5년 미만	50 (17.7)
	30-39세	27 (10.6)		5-10년 미만	32 (11.3)
	40-49세	58 (22.8)		10-15년 미만	17 ( 6.0)
	50-59세	91 (35.6)		15-20년 미만	30 (10.6)
	60세 이상	79 (31.0)		20년 이상	154 (54.4)
부인 교육수준	무학	50 (17.7)	농촌 생활년수	5년 미만	8 ( 2.8)
	국졸	143 (50.5)		5-10년미만	16 ( 5.7)
	중졸	56 (19.8)		10-15년 미만	19 ( 6.7)
	고졸	34 (12.0)		15-20년 미만	19 ( 6.7)
남편 교육수준	무학	20 (12.6)	연간 총소득	20년 이상	221 (78.1)
	국졸	90 (35.2)		500만원 미만	73 (26.2)
	중졸	82 (32.0)		500-1000만원	77 (27.6)
	고졸	57 (22.3)		1000-2000만원	66 (23.7)
가족수	1명	8 ( 2.8)	주된 영농형태	2000-3000만원	30 (10.8)
	2명	137 (48.4)		3000-4000만원	16 ( 5.6)
	3명	48 (17.0)		4000만원 이상	17 ( 6.1)
	4명	37 (13.1)		논농사	174 (61.5)
	5명	27 ( 9.5)		밭농사	42 (14.8)
	6명 이상	26 ( 9.2)		비닐하우스	41 (14.5)
자녀수 손자포함	없음	155 (54.8)	농기계 보유수	양축	23 ( 8.1)
	1명	44 (15.5)		기타	3 ( 1.1)
	2명	50 (17.7)		없음	37 (13.1)
	3명	25 ( 8.8)		1 -2대	157 (55.5)
	4명	9 ( 3.2)		3-4대	45 (15.9)
가족 형태	핵가족	226 (79.9)	부인 농기계 사용법	5-6대	28 ( 9.9)
	확대가족	57 (20.1)		7대 이상	16 ( 5.7)
				전혀 모른다	133 (47.3)
				거의 모른다	40 (14.2)
			조금 모른다	63 (22.5)	
			잘 다룬다	45 (16.0)	

〈표 1〉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살펴 보면 우선 연령에서 50대 이상은 부인 56.2%, 남편

66.6% 나 되었다. 40대 미만의 남편은 10.6% 밖에 되지 않아 전남지역 농가노동력의 노령화 정도가 심

각함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국졸이하의 경우가 부인 68.2%, 남편 48.0%로 교육정도가 낮았다. 현재 동거하는 가족수는 2명이 48.4%로 가장 많고, 평균 가족수는 3.07명으로 전국농가 3.23명 보다 적은 수이다. 동거하는 자녀나 손자의 평균수는 0.9명이다. 가족형태는 부모와 동거하는 3세대 이상 가구는 20.1%(1990년 통계청 자료 17.4%)이다. 현재 동거하는 막내자녀나 손자가 있는 경우 자녀의 연령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가 19.9%로 가장 많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건축년수는 20년 이상이 54.4%로 가장 많고, 농촌에서 생활한 년수도 20년 이상이 78.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간총소득은 1000만원 미만이 53.5%를 차지하였는데, 전국농가의 농외소득을 제외한 농업소득평균(10,469천원)과 비교할 때 더 낮은 수준이다. 대개의 농가에서는 2가지 이상의 농업을 하고 있으나 주된 영농형태로는 논농사가 61.5%로 가장 많으며, 밭이나 과수원 등이 14.8%, 비닐하우스같은 시설작물은 14.5%로 나타났다. 농기계보유수는 1-2대가 55.5%로 가장 많았다. 농가부인이 농기계 사용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잘 다루는가를 살펴보니 전혀 모른다가 47.3%로 가장 많고, 잘다룬다고 응답한 부인은 16% 밖에 되지 않았다.

## 2. 농가주부의 농촌생활의식과 만족수준

농촌생활에서 농가주부가 가장 심각하게 인식한 환경문제로는 29.4%가 농약공해라고 하였다. 그 다음은 쓰레기처리 문제(20.1%), 분뇨처리와 수질오염 문제(각 13.3%) 순으로 나타났다. 농약공해로 인한 피해사례도 매년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교육이 요청된다 <표 2>.

목돈이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저축을 하겠다는 사람이 29.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자녀교육에 투자(27.4%), 농사, 부채상환 순으로 나타났다. 생업인 농업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25.3%에 불과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여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

농민들은 건강이 부실하게 되는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55.5%가 과중한 농사일 때문이라고

<표 2> 농가부인이 인식한 환경문제

환 경 문 제	빈 도(%)
쓰레기 처리 문제	56 (20.1)
수질 오염	37 (13.3)
농약 공해	82 (29.4)
상하수도 문제	26 ( 9.3)
분뇨처리 문제	37 (13.3)
도로 문제	17 ( 6.1)
주택 문제	13 ( 4.7)
놀이공간 문제	11 ( 3.8)

<표 3> 목돈투자

용 도	빈 도(%)
농 사	71 (25.3)
저 축	82 (29.2)
부채상환	40 (14.2)
부동산 구입	11 ( 3.9)
자녀교육	77 (27.4)

답하였다. 이것은 1994년 김태호연구 결과(40.1%)보다 높은 수치이다.그 다음은 질병의 치료시기를 놓쳤기때문(24.9%)이라고 하였다. 이는 전남지역 농가의 노동부담의 심각성과 의료체계의 확대 및 전문화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표 4>.

<표 4> 농민 건강 부실 이유

이 유	빈 도(%)
과중한 농사일	156 (55.5)
과다한 음주	13 ( 4.6)
농기계 사고	7 ( 2.5)
영양 부실	11 ( 3.9)
농 약	17 ( 6.1)
산후조리 미흡	7 ( 2.5)
질병의 치료 시기 놓침	70 (24.9)

농가주부가 가장 심각하게 인식한 농촌여성문제는 역시 농사일과 가사일의 부담이라고 64.5%가 답하였



다. 이 결과도 1994년 연구결과(44.7%)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그리고 다음 순위는 자녀양육(19.6%), 편익시설의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농사일이나 가사일 모두 그 성격상 일의 시작과 끝이 모호하므로 계속 연장되는 특성이 있다.

<표 5> 농촌 여성 문제

여 성 문 제	빈 도(%)
농사일과 가사일 부담	178 (64.5)
여성 경시 풍조	6 ( 2.2)
자녀 양육	54 (19.6)
편익시설 부족	23 ( 8.3)
취미 활동기회 부족	15 ( 5.4)

농촌이 도시보다 덜 발전하게 된 이유로는 75.2%가 정부의 도시위주의 편향된 정책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1994년 결과(46.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남지역 농가는 공업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에 높은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표 6> 농촌의 저발전 이유

이 유	빈 도(%)
정부의 도시 위주 정책	212 (75.2)
농민 단결력 부족	13 ( 4.6)
세상 변화에 대한 지식 부족	43 (15.2)
농민 능력 부족	12 ( 4.3)
농민 근면성 부족	2 ( 0.7)

농업에 대한 의식과 가치인식에 대한 경향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딸이 농사짓는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은가에 긍정적인 답은 6.1%밖에 되지 않고, 자녀에게 농업을 승계하겠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사람은 7.6%에 불과하여, 대부분 농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신농사기술을 습득하는 데도 19.1%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의 주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직업으로서 농업이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0.7%에 불과하여 장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

다. 정부의 농업정책이 농업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3.2% 뿐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농민여론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각 문항별 평균점수를 볼 때 모든 문항이 중간점을 훨씬 밑도는 수준임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고, 농업승계의식도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은 <표 8>에 제시되었다. 현재의 여유시간의 양에 대해서는 평균 3.20점으로 중간점을 상회하나, 여가의 활용내용에서는 2.81점으로 불만족경향이 높았다. 조사시기가 미곡생산 농가에서는 농한기에 해당하므로 현 여가시간의 양에 대한 만족수준이 다소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농업노동시간의 양에 대해서도 불만족한 경향이 강하고(2.44), 농사일에 대한 댓가에서는 만족수준이 가장 낮았다. 한편 가정생활이나 가사일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점수로 볼 때 농가주부는 가정생활에는 다소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다음은 여가생활이며, 농사일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만족수준을 나타내었다.

### 3. 농가부부의 노동시간 현황

농가부부의 농업노동시간의 경향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부인은 논일에 63분, 밭일에 61분을 할애하고, 그 다음은 비닐하우스 작업(47분), 농작물의 수매판매나 퇴비만들기, 농사일과 관련한 부업이나 농외취업 등의 기타(39분), 양축(27분) 순으로 소비하였다. 남편은 기타에 89분, 논작업에 86분을 소비하고, 그 다음은 비닐하우스 작업(61분), 양축(60분), 밭작업(50분) 순으로 나타났다.

밭작업에서만 부인이 남편보다 더 많은 참여를 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남편이 보다 많이 참여하였다. 부인과 남편의 총농업노동 시간은 각각 240분, 365분으로 남편이 부인보다 농업노동에 125분 더 많이 할애하였다. 총 농업노동시간에서 남편과 부인의 참여비율은 60:40이다.

<표 10>의 가사노동시간 현황을 보면 농가부인은

〈표 7〉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

문항	전혀 안그렇다	대체로 안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평균
딸이 농사짓는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은가?	154(54.8)	74(26.3)	36(12.8)	12( 4.3)	5(1.8)	1.71
새 농사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가?	112(39.7)	60(21.3)	56(19.9)	54(15.2)	11(3.9)	2.22
자녀에게 농사일을 물려주겠는가?	159(57.2)	67(24.1)	31(11.2)	16( 5.8)	5(1.8)	1.71
농업은 직업으로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99(35.5)	85(30.5)	65(23.3)	23( 8.2)	7(2.5)	2.12
정부정책이 농업실정을 제대로 반영하는가?	131(46.5)	98(34.8)	44(15.6)	8( 2.8)	1(0.4)	1.76
정부가 농민여론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146(51.8)	89(31.6)	41(14.5)	6( 2.1)	0(0.0)	1.67

〈표 8〉 생활만족수준

문항	아주불만	대체로 불만	그저그렇다	대체로 만족	아주 만족	평균
현재 여유시간의 양	20( 7.1)	34(12.1)	116(41.3)	93(33.1)	18(6.4)	3.20
여가 활용의 내용	29(10.3)	62(22.1)	130(46.3)	53(18.9)	7(2.5)	2.81
농사 노동시간의 양	56(20.1)	87(31.2)	96(34.4)	37(13.3)	3(1.1)	2.44
농사일에 대한 댓가	83(29.9)	98(35.3)	66(23.7)	28(10.1)	3(1.1)	2.17
가정생활	16( 5.7)	23( 8.2)	126(45.0)	93(33.2)	22(7.9)	3.29
가사일	13( 4.6)	30(10.7)	149(53.0)	74(26.3)	15(5.3)	3.17

〈표 9〉 농업노동시간

(단위: 분)

농업노동	부 인	남 편
논작업	63	86
밭작업	61	50
비닐하우스작업	47	61
양축	27	60
농기계손질	2	19
기타	39	89
계	240	365

기타: 수매판매, 퇴비만들기, 농사관련 부업과 농외취업을 포함

식사준비와 설거지에 137분을 할애하고, 그 다음은 청소와 정돈(56분), 빨래와 옷정리(54분) 순이다. 남

〈표 10〉 가사노동시간

(단위: 분)

가사노동	부 인	남 편
식사준비·설거지	137	4
청소·정돈	56	15
빨래·옷정리	54	1
신체적 가족돌보기	21	8
비신체적 가족 돌보기	20	1
장보기	11	25
계획·가계부·관광서·은행일	2	2
기타	3	8
계	308	63

편은 장보기에 가장 많아 참여하고(25분), 그 다음은

청소와 정돈(15분)이다. 부인과 남편의 총가사노동 시간은 각각 308분, 63분으로 분담정도를 비교해보면 부인이 남편보다 가사노동에 245분을 더 많이 할애하였다. 총 가사노동시간에서 남편과 부인의 참여 비율은 20:80이다. 이것은 1987년 연구(김주숙)보다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90-80%)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주부가 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은 부인이 548분, 남편이 428분으로 부인이 남편보다 120분 더 오랜 시간을 일하였다.

4. 농가부부의 여가시간현황

〈표 11〉의 여가시간현황을 보면 부인은 TV를 시청하고 라디오를 듣는데 가장 많은 163분을 소비하고, 그 다음은 낮잠(55분), 가족이나 이웃과 한담(46분)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대부분의 여가를 소극적인 데 할애하고, 운동과 관람구경, 게임, 종교활동과 같은 적극적 여가영역에는 28분(9%)밖에 되지 않았다. 남편의 경우도 TV를 시청하고 라디오를 듣는데 178분을 소비하고, 그 다음은 낮잠(69분), 신문이나 책 잡지(35분) 순이다. 여가의 성격별로 볼 때 남편은 적극적 여가에 21%를 할애하여 부인보다는 할애비율이 높다. 총여가시간을 보면 부인은 300

분, 남편은 373분으로 남편이 부인보다 여가에 73분을 더 소비하였다.

5. 노동과 여가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편과 부인의 노동과 여가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각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회귀모델에 포함되는 변수들을 다소 다르게 하였다. 예를 들면 농기계 보유수는 농업노동시간에만 포함시킨 것과 같다. 시간변수에서는 시간의 특성상 여가시간은 노동시간보다 융통성이 있고 강제성이 적은 시간이기 때문에 농업노동시간에서는 가사노동시간만을 독립변수로 하고, 가사노동시간에서는 농업노동시간을, 여가시간에서는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시간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변수의 성격상 주된 영농형태와 가족유형은 가변수(dummy var.)로 처리하였고, 모든 독립변수는 다중공선성 검증을 한 후에 총족된 경우에만 회귀모델에 포함시켰다.

1) 농업노동시간에 영향요인

농가부인의 농업노동시간에  $P < 0.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된 영농유형과 부인 가사노동시간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서로의 영향력을

$$\text{부인농업노동시간} = 44.50 + 19.70 \text{ 비닐하우스} \cdot \text{밭농사} - 0.75 \text{ 부인가사노동시간}$$

통제할 때, 비닐하우스나 밭농사를 주로 하는 경우가 다른 영농형태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부인이 가사노동시간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 농업노동시간은 감소하였다. 이 두 변수는 부인 농업노동시간의 분산을 69% 설명하여 준다.

남편의 농업노동시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된 영농형태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논농사를 주로 하는 경우가

$$\text{남편농업노동시간} = 62.67 - 15.91 \text{ 논농사} - 1.47 \text{ 남편가사노동시간}$$

다른 영농형태보다 더 적은 시간 일을 하였다. 이

〈표 11〉 여가시간

(단위: 분)

여가내용	부인	남편
TV·라디오	163	178
신문·잡지·책	7	35
이야기	46	44
낮잠	55	69
운동	2	10
관람·구경	3	3
게임	7	28
종교활동	16	3
기타	2	38
계	300	373

기타: 부락회이나 애경사 참여·이동시간

는 본조사의 시기가 논농사에서는 한가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또한 남편이 가사노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농업노동시간은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이 두변수는 남편 농업노동시간의 분산을 58% 설명하여 준다.

### 2)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요인

농가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된 영농형태와 주부연령, 부인의 농업노동시간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서로의 영향력을

$$\text{부인가사노동시간} = 64.76 - 15.19 \text{ 양축농업} - 4.77 \text{ 부인연령} - 0.61 \text{ 부인농업 노동시간}$$

통제할 때 양축농가의 부인이 다른 영농형태의 경우보다 가사노동에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부인 연령은 많을수록, 농업노동에

$$\text{남편가사노동시간} = 31.53 - 3.67 \text{ 남편연령} - 0.18 \text{ 남편농업노동시간}$$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였다. 이 세변수는 종속변수의 분산을 67% 설명하였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연령과 농업노동시간이다.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서로의 영향력을 통제할 때 남편의 연령이 많고, 농업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가사노동에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 두변수는 남편가사노동시간의 분산을 46% 설명하여 준다.

### 3) 여가시간에 영향요인

농가부인의 여가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인의 농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으로 나타났다. 농가부인이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text{부인여가시간} = 73.43 - 0.91 \text{ 부인농업노동시간} - 0.88 \text{ 부인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은 감소하였다. 이 두 개의 시간변수는 부인여가시간의 분산을 74% 설명하였다. 남편의 여가시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된 영농형태와 남편의 농업노동시간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농

형태보다 비닐하우스나 밭농사를 주로하는 경우, 남편의

$$\text{남편여가시간} = 43.50 - 10.26 \text{ 비닐하우스농업} \cdot \text{밭농사} - 0.53 \text{ 남편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은 보다 적었다. 남편이 가사노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여가시간이 감소하였다. 이 두 시간변수는 종속변수의 분산을 55% 설명하여 준다.

## V. 요약 및 결론

1) 전남지역 농촌생활에서 농가주부가 가장 심각하게 인식한 환경문제는 농약공해이고, 다음은 쓰레기처리, 분뇨처리와 수질오염문제순으로 나타났다. 목돈이 생긴다면 우선 저축하거나, 자녀교육에 투자하고 다음은 농사, 부채상환 순으로 나타났다. 농민 건강이 부실하게 되는 주원인은 과중한 농사일 때문이고, 다음은 질병의 치료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농가주부가 가장 심각하게 인식한 농촌여성 문제는 농사일과 가사일의 부담이라고 하고, 다음 순위는 자녀양육, 편익시설의 부족 순이다. 농촌 저발전의 가장 큰 원인은 도시위주의 편향된 정부정책 때문으로 대다수의 농민이 인식하고 있었다.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에서는 대다수의 주부가 자식대까지 농업을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신농사기술을 습득하는 데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농업의 장래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정부정책은 농업실정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농민어른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에서는 현여유시간양에 대해서는 다소 만족하나, 여가의 활용내용에서는 불만족 경향이 높았다. 농업노동시간의 양에 대해서도 불만족한 경향이 강하고, 농사일에 대한 맺가에서는 만족수준이 가장 낮았다. 한편 가정생활이나 가사일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농가부부의 농업노동시간에서 부인은 논일에 63분, 밭일에 61분을 할애하고, 그 다음은 비닐하우스작업(47분), 기타, 양축 등의 순으로 소비하였다. 남편은 기타에 89분, 논작업에 86분을 소비하고, 그 다

음은 비닐하우스 작업(61분), 양축(60분), 밭작업(50분) 순으로 나타났다. 밭작업에서만 부인이 남편보다 더 많은 참여를 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남편이 보다 많이 참여하였다. 부인과 남편의 총농업노동 시간은 각각 240분, 365분으로 남편이 부인보다 농업노동에 125분 더 많이 할애하였다. 총 농업노동시간에서 남편과 부인의 참여비율은 60:40이다. 가사노동시간에서 부인은 식사준비와 설거지에 137분을 할애하고, 그 다음은 청소와 정돈(56분), 빨래와 옷정리(54분) 순이다. 남편은 장보기에 가장 많아 참여하고(25분), 그 다음은 청소와 정돈(15분)이다. 부인과 남편의 총가사노동 시간은 각각 308분, 63분으로 분담정도를 비교해보면 부인이 남편보다 가사노동에 245분을 더 많이 할애하였다. 총 가사노동시간에서 남편과 부인의 참여비율은 20:80으로 가사노동을 주부가 거의 전담하고 있다. 농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은 부인이 548분, 남편이 428분으로 부인이 남편보다 120분 더 오랜 시간을 일하였다.

3) 여가시간현황을 보면 부인은 TV시청·라디오에 163분을 소비하고, 다음은 낮잠(55분), 가족·이웃과 한담(46분)하는 순으로 대부분의 여가를 소극적인 데 할애하고 적극적 여가는 9% 밖에 되지 않는다. 남편도 TV시청·라디오에 가장 많은 178분을 소비하고, 그 다음은 낮잠(69분), 신문이나 책 잡지(35분) 순으로 소비하고, 적극적 여가에 21%를 할애하였다. 총여가시간을 보면 부인은 300분, 남편은 373분으로 남편이 부인보다 여가에 73분을 더 소비하였다.

4) 부인의 농업노동시간은 비닐하우스나 밭농사를 주로 하는 경우가 다른 영농형태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가사노동시간이 많을수록 감소하였다. 남편의 농업노동시간은 논농사를 주로 하는 경우, 남편이 가사노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감소하였다.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양축농가인 경우, 부인 연령이 많을수록, 농업노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감소하였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의 연령이 높고, 농업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농가부인의 여가시간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감소하였다. 남편의 여가시간은 비닐하우스나 밭농사를 주로하는 경우, 남편이 가사노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감소하였다. 이로써 비닐하우스나 밭농사는 겨울철 농업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여가시간은 감소시키며, 양축업을 주로하거나 고연령은 가사노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상호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고, 여가시간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기초로 몇가지 결론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총노동량을 볼 때 부인의 노동과중이 더 심한데, 61.5%의 농가부인은 농기계 사용법을 거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 <표 1>고 하여 농촌 여성들의 자각과 농기계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이 시급히 요청된다. 특히 기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밭작업에 부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밭농사는 농산물 시장개방에도 가격경쟁력이 높은 고수익작물의 생산기반이 되므로, 밭의 경지정리와 효율적인 기반시설과 기계작업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농약공해와 쓰레기, 분뇨처리문제가 전남지역 농촌의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되었는데, 매년 농약중독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농약살포시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유기농법의 보급과 확대장려가 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 지역 주택의 건축년수는 절반이상이 20년이상의 노후주택 <표 1>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개량과 주거환경개선이 보다 요청된다. 주거환경을 개선할 때는 부분적인 주택개량이나 회관, 창고 등의 설치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쓰레기와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의 정비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3) 전남지역 대다수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과 정부정책에 대한 의식은 매우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며, 영농의지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수준도 낮게 나타났는데, 정부차원의 정책적배려와 다각적 복지대책 방안이 우선적으로 확대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심리적으로 피폐한 양상을 보이는 농촌가족에 획일적이고 외부적, 일시적인 사업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실시하고, 농정에 대한 가치감과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근로자 수준의 노동 댓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대다수 전남지역 농민은 건강부실 원인으로 과중한 농사일과 치료시기 놓침을 들고 있고, 심각한 여성문제로는 농사일과 가사일의 부담이라고 한 것을 볼 때, 특히 이 지역 농가의 노동부담이 심각하고, 의료서비스 확대를 더욱 필요로 함을 시사해준다.

5) 전남지역 조사대상 농가의 평균 가족원수는 3.07명으로 전국농가의 3.23명보다 낮았는데, 노령화된 부부단위로 소규모영농을 유지할 때 생산성은 저하되고, 여기에 최근 증가하는 시설작물 농사를 병행하면 농한기, 농번기의 구분이 없이 농업노동의 부담은 계속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닐하우스와 밭농사는 남편과 부인의 노동시간을 증대하고 여가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남지역 농가의 경제적 취약성과 영세성, 농업노동의 과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농가의 영농규모를 크게하고, 농업생산을 담당할 법인경영체를 조직하거나 기계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별농가와 지역 농업특성에 따라 영농형태를 다양화하고, 농지임차나 농외취업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생산효율을 극대화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농가 남편과 부인의 농업노동참여는 60:40으로 나타났으나, 가사노동에서는 20:80의 참여를 하고 있고, 총노동시간양에서 보더라도 부인의 노동부담이 2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참여가 보다 요청된다. 농촌가족은 확대가족비율과 노인부양지수가 도시보다 높기 때문에 노인부양의 부담까지 안고 있고, 잔존한 농촌가족은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노부부와 독거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탁로소와 같은 시설이나 노후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7)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점차 줄어들어 농한

기때 충분히 쉬면서 다음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여유와 기회가 점차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편의 연령을 기준할 때 전남지역 농가의 66.6%는 50세 이상으로 여가에 대한 인식이 낮고, 여가향유 기대수준도 낮은 구세대이다. 또한 농업노동이나 가사노동은 여가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여가시간양을 확보하고 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가내용에서 볼 때 조사대상 가족은 소일적인 소극적여가에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소극적 여가시간은 오히려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한경미 외, 1990), 농가부부가 노동시간을 경감하여 절대적인 여가시간의 양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만족스럽게 활용할 것인가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촌가족을 대상으로한 여가생활교육과 시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하고 복지체계에서 소외되고 취약한 농촌가족을 위해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무료 여가시설과 생활에 유용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권영자 외 3인,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농가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 200-2, 1987.
- 2) 김동일 외, “한국농촌주민의 삶의 질-사회지표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8, 1982.
- 3) 김인숙, “한국농가의 생활의 질에 관한 조사연구(1),”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13(4), 1992: 1-4.
- 4) 김인숙, 최은숙, “농가의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 관한 연구-생활의 질접근을 위한 시도,”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2), 1993: 83-97.
- 5) 김인숙, 임평자, 김희순, “농가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내용,” 한국농촌생활과학회, 7(1), 1996: 81-97.
- 6) 김일철 외, 한국농민의 불안과 희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7) 김주숙,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 한국농어촌

- 사회연구소: 한국농업, 농민문제연구, 1987: 493-520.
- 8) 김태호, 농촌사회문제론, 농림수산정보센터, 1994.
  - 9) 김혜경, 문수재, 문숙재, 윤정숙, 이영, 농가생활 연구, 신광출판사, 1990.
  - 10) 농림부, 농림수산통계연보, 1970-1996.
  - 11) 농림부, 농가경제조사결과, 1993.
  - 12) 농촌경제연구원, 농촌주민의 의식과 가치관, 1989
  - 13) 농촌진흥청, 농촌사회지표, 1994.
  - 14) 농촌진흥청,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보고서, 생활개선자료, 1980, 1984, 1988.
  - 15) 보건복지부, 도시와 농어촌간 사망률 비교, 1997.
  - 16) 서광희, 조병은,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평가와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1(1), 1993: 97-120.
  - 17) 안옥희, 박인전, 최선남, “청송지역 주부의 가사노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5(2), 1994: 159-168.
  - 18) 정영일, “한국농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광복 5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농업 5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59-94.
  - 19) 조완규, “농민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농촌발전연구소 논총 18, 1993: 63-76.
  - 20) 조희금, “농촌주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990: 163-180.
  - 21) 최은숙, 김인숙, “농촌가정생활의 질 진단을 위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990: 87-100.
  - 22) 최은숙 외, “한국농촌의 생활의 질 지표개발 및 진단-지역개발지표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서울대학교 농촌개발연구소, 1992.
  - 23)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1993.
  - 24)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5.
  - 25) 한경미, 농가부부의 노동과 여가: 선행연구분석을 통한 가족복지대책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97: 143-154.
  - 26) 한경미,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91: 171-190.
  - 27) 한경미, 황덕순,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기 자녀를 가진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990: 69-82
  - 28) 한국은행, 주요경제사회지표, 1988.
  - 29)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0, 1996.
  - 30) Brown & Paolucci(1979), 윤복자, 김경희, “가정학 철학에 대한 Vincenti의 사적사상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1(3), 1983: 153 재인용.